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61호

2025.11.06.(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미-중·통상	美-中 정상회담서 무역갈등 리스크 완화	한-미·ESS	삼성SDI,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 공급 논의 중
미국·구리	美, 구리 제련소 환경규제 완화	중국·광물	中, 텐스텐 등 희귀금속 수출관리 규정 발표
한-미·해양	美,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한-미·철강	포스코, 1조 원 투자하여 美 철강사 자분 인수
인도·희토류	인도, 희토류 인센티브 프로그램 규모 3배 확대	한-미·희토류	美, 강원에너지와 희토류 자석 생산공장 설립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에너지	[미-중 공급망 이슈 둘보기] 세기의 담판된 미-중 정상회담… 무역 갈등 잠정 완화
중국·ESS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코발트 가격 급등…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시그널
미-중·통상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삼성SDI,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 공급 관련 협의 중

산업·품목 심층분석

글로벌·조선	조선 강국의 새로운 항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역할
--------	-----------------------------------

원자재 뉴스 PLUS

재생에너지	사우디 리야드 풍력발전 사업, 한전 참여 컨소시엄이 수주
-------	---------------------------------



II.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니켈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공격받는 자유무역 시대,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IV. 공급망 소식통



2025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 (부산) (11.2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미-중, 통상 美-中 정상회담서 무역갈등 리스크 완화	10.3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中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통제·관세·입항 수수료 분야 등에서 합의를 이룸 ✓ 中은 10월 공표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고, 美는 '수출통제 50% 규칙(Affiliate Rule)'을 1년 유예함 	연합뉴스
2	한-미, ESS 삼성SDI,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 공급 논의 중	1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SDI는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 중 ✓ 거래 성사 시, 삼성SDI는 테슬라에 약 21.1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임 	한국경제
3	미국, 구리 美, 구리 제련소 환경규제 완화	10.2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제련소 대기오염 규제에 2년간의 유예기간 부여를 결정함 ✓ 이는 납·비소·수은·벤젠·다이옥신 등 주요 유해 물질 배출 상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폴리티코
5	중국, 광물 中, 텅스텐 등 희귀금속 수출관리 규정 발표	10.3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상무부는 「26~27년 텅스텐·안티몬·은 수출 국영 무역기업 신고 조건 및 절차」를 발표 ✓ 이는 2001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써, 당국은 정기적으로 기업의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갱신·관리 중 	글로벌타임즈
4	한-미, 해양 美,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10.3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美 대통령은 트루스소설을 통해 우리나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힘 ✓ 또한 이를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경향신문
6	한-미, 철강 포스코, 1조 원 투자하여 美 철강사 지분 인수	10.3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2위 철강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포스코 홀딩스와 MOU를 맺었다고 발표함 ✓ 포스코홀딩스는 '26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클리블랜드 지분을 10% 이상 인수할 예정 	한국경제
7	인도, 희토류 인도, 희토류 인센티브 프로그램 규모 3배 확대	1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는 희토류 자석 생산 인센티브를 당초 계획의 약 3배 규모인 약 1.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희토류 대외의존도를 낮출 기술로 평가되는 동기화 자기 저항 모터 연구에도 자금 투입 중 	이코노믹 타임즈
8	한-미, 희토류 美, 강원에너지와 희토류 자석 생산공장 설립	11.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 노베온 마그네틱스는 강원에너지와 협력해 韓에 네오디뮴 희토 영구자석 공장 설립 MOU를 체결 ✓ 해당 공장은 2027년 가동 예정 	SMM

◆ 주간 이슈 포커스

① 미·중 공급망 이슈 돌보기

미·중, 통상 세기의 담판된 미·중 정상회담… 무역 갈등 잠정 완화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한 中에게 완화적 조치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과 시진핑 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10.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시작되어 ▲수출통제 ▲관세 ▲선박 입항 수수료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룸

구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완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완화
관세	대중국 일반 관세율 57%→47%로 인하	대미국 상호관세 24% 1년 유예 및 상응하는 중국 측 보복 조치 조정
펜타닐	펜타닐 대중국 관세율 20%→10%로 인하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펜타닐 전구물질 등 차단 협력에 동의
수출통제	수출통제 50% 적용 규칙(Affiliate Rule) 시행 1년 유예	10.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시행을 1년 유예
입항 수수료	中 건조 및 中 소유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 유예	보복조치로써 공표한 美 건조 및 美 소유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 유예
기타	-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소유권 조정 검토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양국 간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美의 첨단산업 관련 수출통제였으며, 즉각적·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中은 지난 4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으며, 10.9일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희토류 5종** 등 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 신규 수출통제를 공표함
*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테르븀, 루테늄, 스칸듐, 이트륨 ** 훌뮴, 어븀, 유로퓸, 이테르븀, 툴륨
- ▶ 한편, 美는 지난 9.29일 ▲Entity List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User List) ▲특정 제재 당사자(SDN) 해당 기업의 50% 이상 지분 보유 자회사(계열사 포함)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함.

출처: 연합뉴스(10.30.),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워싱턴D.C.무역관 자료 종합

문제 해결의 공감대 형성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 (참고) 10.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유예된 의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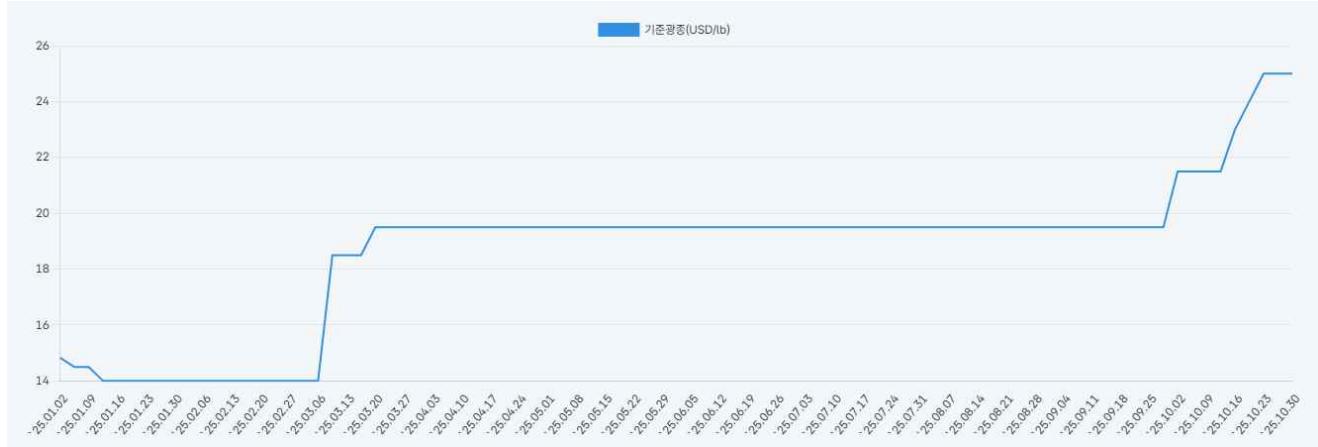
구분	합의 현황 및 유예 내용
첨단기술 규제	일시적 완화에 대해서는 합의되었으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는 최신형 모델인 '블랙웰'은 제외됨
대만 문제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고 제외되었음
남중국해 해상권	美 국방장관의 우려 표명은 있었으며, 실질적 합의는 없이 추후 협상 예정
우크라이나 문제	공동 대응 수준의 합의는 있었으나, 종전을 위한 실질적 합의는 부재함
초고율 관세	단기적(1년) 유예에 그쳤으며, 추가 인하 및 철폐는 향후 논의 예정

출처: 로이터(10.30.), 타임(10.30.)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글로벌, 코발트 코발트 가격 급등…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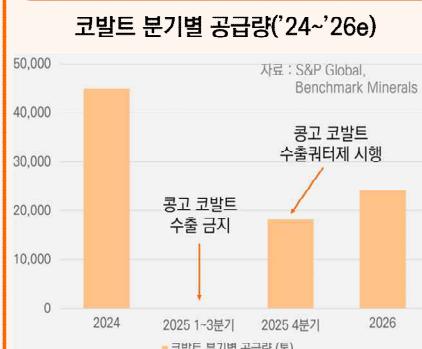
글로벌 코발트 가격은 10.30일 기준 25달러/lb으로, 전월 평균 대비 28.21% 상승했으며, 전년 평균 대비 53.94% 상승함



◆ 코발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특히 NCM, NCA의 삼원계 배터리)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코발트 가격의 급등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원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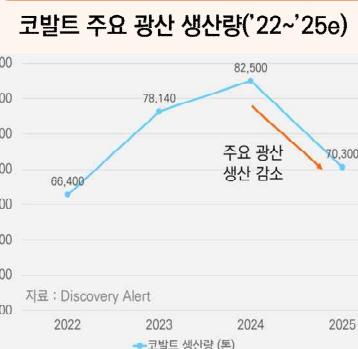
▶ 이는 ▲민주콩고(DRC)의 코발트 수출 쿼터제 시행으로의 전환 ▲주요 광산의 생산량 감소 ▲전기차 생산 증가로 인한 하이니켈 배터리 수요의 증가에 따른 현상임

글로벌 코발트 공급량 약 63% 감소



- 민주콩고의 '25년 4분기 월평균 코발트 수출 쿼터는 6,040톤으로, '24년 월평균 수출량 16,160톤 대비 63% 감소
- '26년 월평균 수출 쿼터는 7,250톤으로 '24년 대비 약 50% 수준

코발트 주요 광산 생산량 약 15% 감소



- '25년 민주 콩고의 코발트 생산량은 70,300톤으로 전망되며, 전년 대비 약 15% 감소
- ▲텐케(Tenke), 키산푸(Kisanfu) 등 민주콩고의 대형 코발트 광산의 광석 품위 악화·매장량 고갈·노후화
- ▲ 코발트 수출쿼터제 도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

하이니켈 배터리 수요 연 20% 성장



- '21년부터 코발트를 양극재 원재료로 사용하는 하이니켈 배터리 수요는 연평균 15%~20% 성장
 - NCM·NCA 계열 전구체* 내 코발트 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 전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으로 코발트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체의 코발트 수요 중 85% 이상이 NCM·NCA 계열에서 발생함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한-미, ESS 삼성SDI,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 공급 관련 협의 중

AI가 선정한 이슈

2025.10.27일부터 11.4일까지의 공급망 이슈를 분석한 결과, 11.4일 보도된 “삼성SDI가 테슬라와 3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 가장 시의성과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Q. 삼성SDI가 테슬라의 공급사로 논의되는 이유는?

A. 삼성SDI는 미국에 생산 거점을 이미 확보했으며, 기술 신뢰도, 대량 공급 역량, 글로벌 품질 인증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 배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 배터리사들이 대체 공급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논의되는 계약의 차별성 및 특이사항은?

A. 이번 계약은 전기차용 배터리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대형 배터리 공급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테슬라가 ESS 사업 확대와 북미 데이터센터용 전력망 시장 진출을 동시에 노리면서, 단순 자동차 외 분야에서 첫 대형 상업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논의되는 계약의 진척 상황은?

A. 삼성SDI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며, 논의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생산 거점 등 세부적인 사안이 공개될 만큼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단기 내 최종 체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슈 더 알아보기

로이터는 삼성SDI가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ESS 담당 임직원이 지난주 방한해 삼성SDI와 배터리 공급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합의함. 거래가 성사되면 삼성SDI는 약 3년 동안 매년 10GWhh 안팎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약 21.1억 달러(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계약 성사 시, 삼성SDI는 미국 완성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세운 합작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해 현지에서 납품할 계획임

삼성SDI-스텔란티스 인디애나 합작 공장과의 관계

해당 공장은 2022년에 양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대규모 배터리 제조시설임. 애초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낮은 공장 가동률로 인해 고전하던 중이었음

그러나, 테슬라와의 ESS용 배터리 계약 논의가 진행되면서, EV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 대형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결정됨. 이로써 스텔란티스는 공장 가동률을 개선하고, 삼성SDI는 빠른 생산라인 전환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해짐

출처: 로이터(11.4.), 한국경제(11.3.)

▶ 한국기업, 미국 배터리 탈(脫)중국화의 수혜자 되나

▶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퇴근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 속에서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여러 규제는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을 미국 자동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임. 이에, 테슬라와 같은 미국 내 전기차와 ESS 업체들은 한국·일본 등 현지 생산기업으로 공급선을 대체하고 있음. 아래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주요 배터리 계약 및 사업내용을 정리한 표임

구분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주요 파트너	스텔란티스, 테슬라	GM, 현대·기아차, 포드, 혼다
미국 내 주요 공장	인디애나 코코모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테네시, 미시간, 켄터키
사업 유형	전기차 배터리, ESS 배터리 생산	전기차 배터리 중심, ESS 배터리는 확대 중
계약 규모	테슬라 : 연 10GWh, 21억 달러(약 3조 원)	GM : 연 35~40GWh
공급망 전략	미·EU 공급망 강화, ESS 전력망 진출 가속화	GM·현대차·포드·혼다 등 북미 완성차 공급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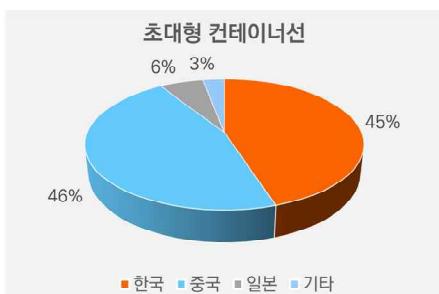
출처: 로이터(11.4.), 조선일보(5.8.)

◆ 산업·품목 심층 분석

글로벌, 조선 조선 강국의 새로운 항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역할

10.30일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침예하게 대립하던 의제들에서 완화된 합의를 이뤄냄. 이에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선박에 대해 부과한 항만 입항 수수료(10.14일부 시행)는 1년간 중단됨. 또한, 당시 중국이 10.10일 즉각 보복 조치로서 미국 선박에 대해 부과한 입항 수수료 역시 중단됨. 양국은 무역분야의 보복조치를 서로 일시 정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음. 합의가 도출되기 전 미·중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는 단순히 통상 이슈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조선 산업 구조와 경쟁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왔음. 이번 산업·품목 심층 분석에서는 글로벌 조선 산업의 구조를 살펴본 후에, 미·중 해운산업 갈등의 영향과 전 세계 주요국들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조선 산업



자료 : Clarkson Research(2025)

전 세계 조선 산업은 고부가가치 특수선박(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과 중저가형 범용선박(벌크선, 피더선 등) 분야로 뚜렷이 분화되어 있음. 2025년 기준, LNG 운반선의 경우 한국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이 설계·생산기술과 인증 제도, 운항 지원 시스템 등에서 앞서고 있음.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LNG 운반선과 달리,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설계와 생산이 과거에 비해 표준화되어 CSSC·COSCO 등 중국의 대형 조선사가 국영 금융지원을 통해 대량생산과 저가 수주에 강점을 보임. 벌크선과 피더선과 같이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표준화된 선종은 중국의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압도적 가격경쟁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올해 상반기 중국 조선소의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9월까지 집계된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23.5% 감소하였음. 또한 시장 점유율은 2024년 75%에서 2025년 상반기 56%로 약 20%p 감소함

그럼에도 중국 조선 산업이 입을 타격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임. 중국 조선소는 한국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선박을 제공하고 있으며, 9월 기준 수주잔고^{*}가 242.2백만 DWT^{**}로 전년 대비 25.3% 증가하여 전 세계 수주잔고의 67.3%를 점유하고 있음. 이는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비미국 항로에 배치하고, 비중국산 선박을 미국 항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제미니(Gemini)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머스크(Maersk)와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새로운 요금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미국 항로에서 제외시킴

* 기업이 수주한 계약 중 아직 완료하거나 인도하지 못한 일감의 총액으로, 주로 건설, 조선, 기계 등 수주 산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어 기업의 미래 매출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표임

** Deadweight Tonnage의 약자로, 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총무게를 뜻하며, 선박 자체의 무게를 제외하고 화물, 연료, 담수, 식량, 선원 등의 무게를 모두 합해 배가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의미함

미국은 '22년 이후 제조업 부흥 정책에 힘입어 자국 내 조선 산업 강화 기조가 공식화됨. '23~'24년 미중 갈등 심화와 중국 조선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50% 돌파를 계기로 미국은 조선 산업의 내재화 전략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기 시작함. 유럽의 경우, 선박의 핵심 부품과 엔진 및 고급 자동화 장치와 같은 기자재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인건비·환경규제·사회복지비 등 기본 원가가 높아 조선 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떨어져, 2000년대부터는 주력산업을 기술 집약적 특수선, 기자재·솔루션산업 중심으로 전환함. 이에 현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저가 범용선박 분야에서는 중국이, 핵심 부품 및 기자재 분야에서는 유럽이 주도하는 국면이 형성됨

미·중 해운 갈등: 바다길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

미국과 중국의 해운 및 조선산업 갈등은 2025년 들어 첨예해졌음. 갈등의 본격적인 발단은 미국이 중국의 조선 산업이 대규모 국영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토대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임.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저임금·저가 생산·대규모 국책금융을 이용하여 국가 주도로 벌크선·컨테이너선 등 범용선박을 대량 수주하여 기존 조건 강국의 시장을 잠식한다고 판단함. 중국이 산업 경쟁력을 국가 주도로 키운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미국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2024년 이래로 미·중 통상 갈등의 축이 반도체, 배터리를 넘어 조선산업까지 확대됨

2025.4월, USTR은 미국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선박 및 중국 소유·운영 선박에 신규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공표하여 지난 10.14일부터 실시해왔음. 이는 항만 운영 현장, 글로벌 선사 및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한·미 및 미·일 등 동맹국 선박도 일부 영향을 받는 복잡한 효과를 발생시켰음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박하며 교통운수부와 해양국을 통해 10.10일자로 신규 조례를 통해 보복 조치로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함. 또한 미국산 선박과 기타 관련 해운 서비스에 추가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일부 입항 지연, 관세 및 서비스 비용 인상 등 여러 비관세 장벽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참고) 미·중 입항 수수료 부과 내용 * 10.30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유예

구분	미국(對中 수수료)	중국(對美 수수료)
시행 시점	2025. 10. 14.	2025. 10. 10.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중국 소유·운영 선박 중국 국적 선사의 주요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서 건조되었거나, 미국 소유·운영 선박 미국 국적 선사의 주요 선박
부과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건조 선박 : (순톤수 × \$18) 또는 (컨테이너 수 × \$120) 중 큰 값 중국 소유·운영 선박 : 순톤수 × \$50 (2025 기준) * 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 (최고 톤당 \$140) 연간 동일 선박 대상으로 5회까지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소유·운영 선박 : 순톤수 × 400위안 * 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 (최고 1,120위안, 톤당 약 \$156) 컨테이너 기준으로 별도 부과 가능 기타 입항 검증 및 부대비용은 별도 적용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컨테이너선 등은 1회 당 수천만 원 추가 부담 컨테이너당 비용은 대형 선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선박에 대한 기타 검증 지연 및 입항 서비스 비용 인상 등 기타 비관세장벽 병행 적용 보복수수료에 따라 국제협약 위반 논란 존재

이에, 앞서 설명했던 중국 조선소의 신규 수주 감소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수주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함. 또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산 선박을 미국 항로에서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함. 같은 중국산 선박 내에서도, 수수료가 높은 대형 컨테이너선보다 수수료가 낮은 소형 피더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흐름이 생김

더 나아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미국·중국 진출용 선박 발주에 반영되어, 새로 건조되는 선박 가격이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수수료가 운임과 해상보험, 그리고 운영비에 전가되어 선주의 운임·보험료가 상승함.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미국·유럽 선사들이 발주처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됨

조선 산업 공급망 불록화: 우방국 간 협력

미국은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방국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한-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미국 내 조선산업 및 해운 공급망 재건의 핵심 동맹 모델로,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약 1,500억 달러(약 213조 원)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임. 현대·삼성중공업 등이 주도하며, 10.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선·함정 공동 건조 ▲노후 조선소 현대화 ▲장기 선박금융 및 정부 보증 ▲친환경·디지털 조선 기술 교류 등 패키지로 최종 합의됨

미국과 일본 역시 10.28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산업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음. 양국 정부는 워킹 그룹 구성, 공동기금 설치를 통해 조선소 건설·설비 공동투자, 기술 개발, 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또한 MASGA와 유사하게 조선소 현대화, 디지털 설계 및 차세대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며, 북극 항로용 쇄빙선·암모니아 추진 선박, 친환경·특수선 설계 및 운영에서 일본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임

▣ (참고) 韓-美 조선산업 협력(MASGA) vs 美-日 조선산업 협력

구분	한-미 협력	미-일 협력
개요	미국 내 조선업 공급망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추진	미-일 공동투자를 통해 설계·기술 표준을 개발
주요 참여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한국 대형조선사, 미국 지방정부·해군·공공기관	미쓰비시, 아마바리 등 일본 대형 조선사, 미 정부 및 기술기업
핵심 협력분야	▲상선·함정 공동건조 ▲노후 조선소 현대화 ▲친환경·디지털 기술 개발 ▲장기금융·보증 ▲공급망 완성	▲조선소 건설·설비 투자 ▲친환경·차세대 기술 개발 ▲쇄빙선·특수선 ▲인재·기술 표준화 ▲공동 생산
투자·수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이 발주하고 한국이 수주하는 구조가 뚜렷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및 투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 양국의 공동기금·공동투자 구조 일본의 기술력과 미국의 생산기반 상호 보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고의 기술과 대량 생산력의 결합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를 일괄 수주할 수 있는 기회 공적 금융·보증,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 희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과 연구개발의 표준화를 동시 달성 미 공급망의 안정화 보조 미국 내 파급력 및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

중국의 반격: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10.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해운업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 美 자회사가 협조하여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 것을 명분으로 제재를 가함. 이는 2021년에 시행된 중국 반(反)외국제재법과 지난 3월 공표된 반외국제재법 제6호 상무부령에 근거한 조치였으며, 현재 총 70개의 기업이 반제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이에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은 중국의 반제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중국 내 조직 및 개인과 거래·협력·기타 행위를 할 수 없게 됨. 반제목록에 등재된 한화 필리조선소는 MASGA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한화가 2024년 인수 후 대규모 투자·신조선 발주를 추진 중이었음

* ▲한화 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 쉬핑 헐딩스 ▲HS USA 헐딩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는 물론, 중국의 보복 조치뿐만 아니라 위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의 반제목록 등재와 같은 제재가 당분간 유예됨. 글로벌 조선·해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한국은 미·중 양국의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함.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 등 특수선종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발주처와의 협력 기반이 넓으며, 중국과도 조선기자재와 관련 기술, 그리고 범용선 발주 측면에서도 상호 의존도가 높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나라가 공급망 재편의 허브 역할을 통해 수주 다변화와 기술 연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함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중 갈등이 유예된 상황을 두고 “한국에게 미국, 중국, 제3국을 연결하는 공급망 허브 전략을 펼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단기적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력 강화를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유지해야 함.

◆ 출처

- Alice lee. (2025, July 9). SCMP.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317497/>
- Bao zhiming. (2025, October 20). Caixin Global. <https://www.caixinglobal.com/2025-10-20/chinas-new-shipbuilding-orders-drop-24-amid-us-tariffs>
- (2025, October 13). The Maritime Executive.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korea-claws-back-market-share-as-global-shipbuilding-market-cools>
-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 Aidan powers-riggs. (2025, September 24). CSIS. <https://www.csis.org/analysis/are-us-policies-eroding-chinas-dominance-shipbuilding>
- Lisa baertlein. (2025, September 26).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hipyard-orders-strong-despite-us-port-fees-china-vessels-report-says-2025-09-25/>
- 해사신문 조선산업팀. (2025, October 27). 해사신문. <http://www.haesaneews.com/news/articleView.html?idno=142834>
- 권대식. (2025, October 16).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2290>
- 최건우 외. (2025, April 10). 미국의 신해양전략이 해운·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 USTR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을 중심으로. KMI 동향분석.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재생에너지 사우디 리야드 풍력발전 사업, 한전 참여 컨소시엄이 수주

- ▣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은 총발전량 4,500MW, 투자액 약 90억 리얄(약 3.2조 원) 규모의 신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5건을 발주함
- ▷ 이 중 한국전력과 사우디 재생에너지 기업 네스마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리야드 인근에서 추진되는 1,500MW 규모의 다와드미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함

출처: SPA(10.27.)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5주)

비철금속 | 금리인하 및 美-中 무역갈등 완화로 인한 동·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0월	전년비(%)	10.4주	10.5주	전주비(%)
동	9,147	9,667	5.7%	10,679	10,964	2.7%
니켈	16,812	15,235	△9.4%	15,008	15,080	0.5%
아연	2,779	2,806	1.0%	3,252	3,203	△1.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 (동)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美-中 정상회담 결과로서 무역갈등 완화 ▲메이저 광산의 생산실적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전망으로 인해 전기동 가격 사상 최고가 경신
- ▣ (니켈) 美 연준 기준금리 인하 및 中의 니켈 수입 확대, 美-中 무역갈등 완화로 인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철강 | 中 제강사들의 비축 수요 확대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0월	전년비(%)	10.4주	10.5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7.99	△20.8%	107.14	109.17	1.9%
원료탄	240.90	185.20	△23.1%	191.08	195.50	2.3%
철광석	109.89	101.34	△7.8%	104.17	106.29	2.0%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 (유연탄)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中의 석탄 생산규제 강화 우려로 연료탄 가격 전주 대비 상승
- ▣ (철광석) 美-中 무역갈등 완화 및 中 북부지역 제강사들의 비축 수요 확대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5주)

희소금속 | 원료 가격 상승 및 수요 강세로 탄산·수산화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0월	전년비(%)	10.4주	10.5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073	△10.6%	1,028	1,028	-
탄산리튬	12,526	9,900	△21.0%	10,629	11,311	6.4%
수산화리튬	11,398	9,478	△16.8%	10,554	10,720	1.6%
코발트 (U\$/lb)	16.25	18.68	14.9%	24.4	25.0	2.5%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46,116	△4.4%	234,700	241,400	2.9%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9,822	25.4%	81,070	82,920	2.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원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운스트림 부문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내 재고 감소로 인해 탄산리튬 가격은 상승 모멘텀 유지

▣ (수산화리튬) 해외 수요는 부진하나, 탄산리튬 가격 상승 및 中 내수시장의 수요 강세로 수산화리튬 가격 소폭 상승

▣ (코발트) 민주콩고의 수출쿼터 시행으로 최근 3주간 급등하던 코발트 금속 현물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다 금주 들어 전전주 후반과 동일한 톤당 25달러로 유지

에너지 | 美 연준 금리인하 및 러-우 양국 간 긴장으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10.4주	10.5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0.58	△9.0	65.46	65.80	0.33
브렌트유	79.86	69.25	△10.60	63.37	64.98	1.61
WTI	75.76	65.90	△9.85	59.43	60.63	1.20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美-中 무역갈등 완화가 유가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美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인하 여부의 불확실성을 발표하며 상승폭이 제한됨

◆ 11.2일, OPEC+가 12월 증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시장 내 공급과잉 우려가 지속되어 유가 상승폭을 제한

월간 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니켈

작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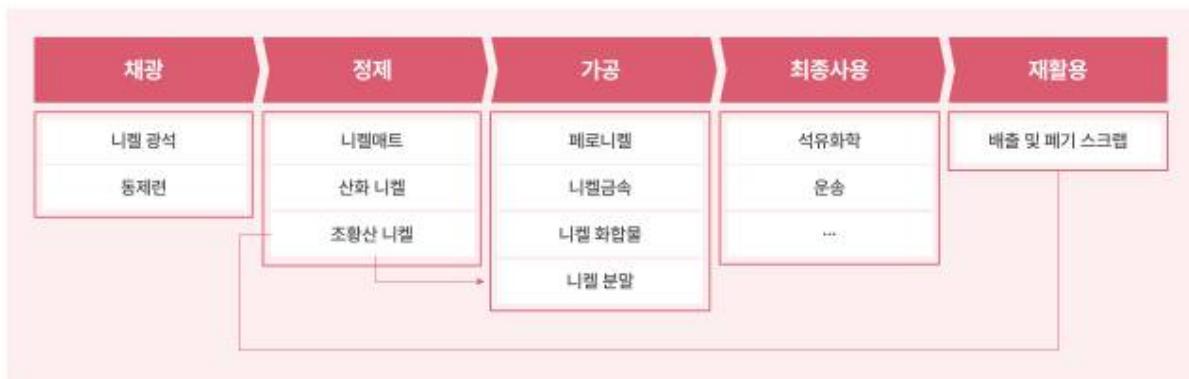
▣ 니켈 품목 개요

- ◆ 니켈(Nickel)은 은백색의 광택을 가진 금속으로, 내식성과 강도가 우수하여 다양한 합금과 산업재의 핵심 소재로 활용됨
- ◆ 자연 상태에서는 주로 황화니켈(NiS) 또는 산화니켈(NiO) 등의 광물 형태로 존재하며, 정련 과정을 통해 고순도 금속 니켈로 제조됨
- ◆ 니켈은 철과 구리 등 다른 금속과의 합금화가 용이하며, 특히 스테인리스강의 주요 합금 원소로 내식성·내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 ◆ 또한 이차전지(특히 리튬이온 및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양극재 핵심 원소로 부상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략 금속으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 니켈 가치사슬

- ◆ 니켈의 가치사슬 구조는 채광, 정제, 가공, 최종사용, 재활용으로 구성됨

[그림 1] 니켈 가치사슬 구조



* 출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TheBNI 재구성

▣ 니켈 산업 동향

- ◆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증가에 따라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Ni) 함량 80% 이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하이니켈 NCM(Ni-Co-Mn) 및 NCA(Ni-Co-Al)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니켈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급 니켈 정제능력 확보가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함
- 스테인리스강 분야에서는 여전히 니켈 소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건축·석유화학 설비용 내식성 소재 수요 증가가 지속됨
- 향후 친환경 제련 기술(예: 저탄소 HPAL, 바이오 침출 등)과 재활용 니켈 회수 기술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임

▣ 니켈 매장량/생산량 현황

- 주요 니켈 매장량은 인도네시아(5,500만 톤, 42.0%), 호주(2,400만 톤, 18.3%), 브라질(1,600만 톤, 12.2%) 순으로 나타남
- 주요 니켈 생산량은 인도네시아(180만 톤, 50.5%), 필리핀(40만 톤, 11.2%), 뉴칼레도니아(23만 톤, 6.4%)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니켈 매장량/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2023 국가별 니켈 매장량(추정)



2023 국가별 니켈 생산량(추정)



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국내 수출액 추이 ('20~'24년)

- '24년 니켈의 수출액은 10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6.9% 증가

[표 1]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백만 달러)	7	14	18	8	10

▣ 국내 수입액 추이 ('20~'24년)

- ◆ '24년 니켈의 수입액은 5,73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29.3% 감소

[표 2]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백만 달러)	6,485	8,586	9,540	8,116	5,738

▣ 니켈 생산·기술개발 현황

- ◆ 한국은 니켈 원광 매장량이 거의 없어,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지에서 광산 확보 및 제련 협작 투자를 추진 중임
- ◆ POSCO홀딩스,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현지 HPAI 공정 기반의 니켈 중간재(MHP, MSP)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정련 기술을 통해 배터리급 황산니켈로 전환하는 밸류체인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세계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가 생산 중심이며, 중국이 제련·정련 능력의 40% 이상을 점유함. 중국 GEM, CNGR, Tsingshan, 호주 BHP, 캐나다 Vale 등은 친환경 제련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강화하고 있음
- ◆ 국내에서는 포스코퓨처엠, LS MnM, 코오롱머티리얼즈 등이 황산침출 정제, 고순도 황산니켈, 전해 정제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폐배터리 회수 니켈 재활용 기술(습식제련, 전해정제, 용매추출 기반)의 효율 향상이 주요 연구 과제로 부상함
- ◆ 산·학·연 협력 차원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재료연구원(KIMS), ETRI 등이 니켈 정련 효율 향상, 저탄소 제련 공정, 리사이클링 기술 국산화를 추진 중임

▣ 출처 및 참고자료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4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K-STAT)
-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 언론, 보도자료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등

공급망 더 알아보기

◆ 공격받는 자유무역 시대,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격받는 자유무역 시대,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기존 FTA 개선 ▲복수국 간 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장기간 진전이 없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을 각각 25년, 10년 만에 타결했다. 영국도 인도와 FTA 협상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지난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안정적인 대외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EU-메르코수르 FTA('24.12월 타결; 25년 소요), 영국-인도 FTA('25.5월 타결; 3년 소요), EU-인도네시아 CEPA('25.7월 타결; 10년 소요)
우리도 이미 타결한 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기발효 FTA 개선을 서두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등 FTA 추진 전략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수 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한 글로벌 수요 선점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므로, 앞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과 함께 FTA의 양적·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시장접근 개선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연구 배경

-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취임 후 광범위한 관세 조치 단행
- ▶ '25.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시작된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전세계·전품목 대상 상호관세로 확대
- ◆ 동맹국까지 대상으로 하는 관세 조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주요국은 대미협상과 동시에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기존 협상을 가속하는 등 제3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

▣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국 FTA 논의 동향

- ◆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 속 주요국은 ① 신규 FTA 체결 및 중단된 협상 재개, ② 기존 FTA 개선, ③ 복수국간무역협정 가입 등으로 양자·지역 협력을 추진
- ▶ 트럼프 2기 관세 조치가 제3국 간 대외 무역협력 강화를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수년간 진전 없던 무역 협정이 급진전
- ▶ 주요국은 최근 무역협정 타결 배경으로 정치적 필요성과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의 중요성 등을 언급
- ◆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UAE, 캐나다-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이나 비(非)전통적 교역 파트너를 중심으로 FTA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신흥국과의 협상이 강조되는 추세

〈트럼프 당선 후 주요국 FTA 논의 동향〉

구분	단계	내용
신규 FTA	협상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12.) EU-메르코수르 FTA, 협상 타결 (25.5.) 영국-인도 FTA, 협상 타결 (25.7.) EU-인도네시아 CEPA, 정치적 합의 도달
	협상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5.) 인도-칠레 CEPA, 제1차 협상 라운드 개최 (25.6.) EU-호주 FTA, 협상 재개 발표 (25.8.) 캐나다-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 발표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1.) EU-멕시코 FTA, 개선 협상 마무리 (25.3.) 중국-스위스 FTA, 제1차 개선 협상
복수국 간 무역협정	신규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12.) 영국, CPTPP 발효 (24.11.) 코스타리카, CPTPP 가입 협상 시작

- ❶ 분석에 따르면 ① 대미 수출 의존도와 ② 내수시장 규모 같은 경제적 지표에 따라 국별로 상이한 FTA 전략을 전개
- ▶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시장 다변화가 중요하고,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을수록 수출을 통한 해외 수요 흡수가 필수적이므로 대형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유형별 FTA 특징〉

유형	해당 국가	대외무역의존도 (평균* : 45%)	대미 수출 비중 (평균* : 26%)	FTA 특징
1	한국, 스위스, 칠레	평균 이상 ↑	평균 미만 ↓	기체결 FTA가 많아 FTA 개선·보완에 집중
2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평균 이상 ↑	평균 이상 ↑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신규 거대 시장 탐색 노력
3	MERCOSUR, 일본, 호주, 중국, 인도, EU, 영국, 인도네시아	평균 미만 ↓	평균 미만 ↓	전략적인 FTA 체결 추진

* 보고서 분석 대상인 14개 국가 · 경제권(EU, MERCOSUR 등 총 43개국)의 평균치

▣ 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시사점

- ❶ 우리나라는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 로드맵에 따라 자유무역 플랫폼을 지속 확대했으며, FTA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정을 타결하며 단기간에 질적·양적 성장을 이룸
- ❷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FTA 정책과 경험을 살려 기발효 FTA 개선을 서두르고,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전제로 CPTPP 가입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등 FTA 추진 전략을 한층 강화할 필요
- ❸ CPTPP 가입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역내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좋은 전략
- ▶ CPTPP는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공산품 99.8% 이상, 농축산물 평균 96.3%, 수산물 100%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
- *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 ▶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양자 FTA를 체결 경험을 살려 민감 업종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심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할 필요

공급망 소식통

- ◆ 2025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 (부산) (11.20.)

작성 KOTRA 지역통상조사실

2025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 (부산)

2025.11.20.(목) 14:00~17:0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

프로그램

- | | |
|--------------------|---|
| 14:00 ~ 14:05 | 모두발언 산업통상부 |
| 14:05 ~ 14:25 | 해외 수입규제 동향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14:25 ~ 14:45 | 해외 기술장벽 동향 TBT 종합지원센터 |
| 14:45 ~ 15:05 | 해외 비관세장벽 주요 사례 및 지원사업 KOTRA |
| ---커피 브레이크(10분)--- | |
| 15:15 ~ 16:00 |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사업 대한상공회의소
美 관세조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사례 법무법인 화우
파생상품 합법화 계산 및 유의사항 안진 회계법인 |
| 16:00 ~ 17:00 | 기업별 1:1 컨설팅 컨설팅 수행기관 |

문의처

KOTRA 통상협력팀 02-3460-3317 / tpc@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통상조사팀 02-6050-3683 / trade@korcham.net



[참가신청 QR]



산업통상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글로벌 경제지표 ['25.11.4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8말	10/31	11/3	11/4	전일비	전년말비
₩/U\$	1,288.00	1,472.50	1,390.10	1,424.40	1,428.80	1,437.90	0.64%	△2.35%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88.70	1,423.30	1,427.30	1,429.00	0.12%	△3.04%
₩/CNY	181.37	202.38	195.08	200.41	200.74	201.74	0.50%	△0.32%
₩/¥100	912.25	932.67	945.52	924.50	926.30	936.50	1.10%	0.41%
¥/U\$	141.19	157.88	147.02	154.08	154.24	153.54	△0.45%	△2.75%
U\$/EUR€	1.1105	1.0429	1.1669	1.1570	1.1537	1.1526	△0.10%	10.52%
CNY/U\$	7.1092	7.2992	7.1303	7.1094	7.1156	7.1243	0.12%	△2.40%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13.61원, (₩/¥100) 952.88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11/3	11/4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6.69	65.37	△1.3	△4.9	△10.6	
					△2.0%	△7.0%	△13.9%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5.85	104.60	△1.3	15.3	4.6	
					△1.2%	17.1%	4.6%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10,872.50	10,600.50	△272.0	2515.0	1894.5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903.00	2,853.00	△50.0	743.0	336.5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4,970.00	14,940.00	△30.0	△25.0	△160.0
					△0.2%	△0.2%	△1.1%	

▣ 반도체

구 분	'23말	'24말	'25.7말	'25.8말	'25.9말	10/30	10/31	11/3	11월(~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75	5.46	5.56	6.59	8.30	8.45	8.50	8.50
	△14.8	0.5	174.3	182.0	240.8	336.4	345.7	350.5	362.3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3	9.48	9.50	9.45	9.80	9.80	10.00	10.00
	△2.3	3.9	50.3	47.9	39.5	45.4	45.4	48.6	49.8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10/17	10/24	10/31	전주비(10/24)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310.32	1403.46	1550.7	10.5%	△37.9%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10/30	10/31	11/3	11/4	전주비(11/3)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983	1966	1945	1958	0.7%	96.4%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산업통상자원부

협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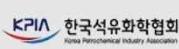


KARI
한국로봇산업협회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KONMA
한국비철금속협회



KFIA
한국섬유화학협회

KOIMA
한국수입협회

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BIA
한국배터리산업협회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KOMIR
한국광학광업공단

KNOC
한국석유공사



KIET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